

# 지상진료실

## 턱교정수술 (XIII) -상악후퇴증 (2)-

서울중앙병원치과  
김재승 · 문윤식 · 백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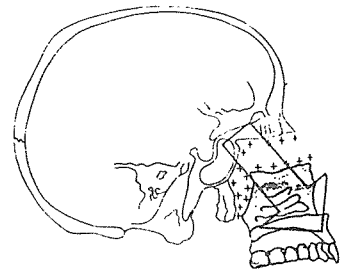
상악골의 후퇴증이 있으면 윗입술과 얼굴중간이 움푹 들어간 'Dish type'의 안모를 갖게 되고 윗치아가 아래치아보다 후방에 위치되어 심한 반대교합을 갖는다. 구개파열, Crouzon's disease의 턱안면기형이나 유전적, 기능적의 원인으로 상악의 성장이 억제되면 상악의 부족이 전후, 좌우 그리고 상하의 3차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래턱이 상대적으로 커보이고 입을 다물면 윗턱쪽으로 더 많이 닫혀지기 때문에(Overclosure) 얼굴중간이 들어간 접시형의 안모가 강조되어 보인다.

상악골의 성장은 두개저를 중심으로 상악골이 전방, 하방으로 뻗어 자라나는 양상을 갖는다. 두개저와 상악골사이의 봉합선이 상악골의 전하방의 이동이 가능하게 위치되어 있어 봉합선에서의 골증식과 골표면에서의 골흡수, 침착으로 상악골이 3차원적으로 성장되어 커진다. 상악골의 뒷쪽 tuberosity부위에서는 골침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유구치, 영구치가 봉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특별한 악안면기형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악의 수술은 상악제 2대구치가 봉출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악후퇴증의 턱교정치료에 있어서, 상악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즉 상악골, 협골, 비골 및 안와골의 포함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전적, 기능적 원인의 턱안면 변형으로서의 상악부족증은 보통 상악골자체에 국한되며, 구개파열과 관련된 상악후퇴증은 비골이 포함된다. 본 증례에서는 두부악안면기형인 craniofacial dysotosis로 상악골 안와골 및 협골부위의 성장부전이 있는 경우로 LeFort I Osteotomy와 sagittal split osteotomy의 턱교정수술로 정상적인 치아와 턱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상악골의 성장은 두개저를 중심으로 상악골이 전방, 하방으로 뻗어 자라나는 양상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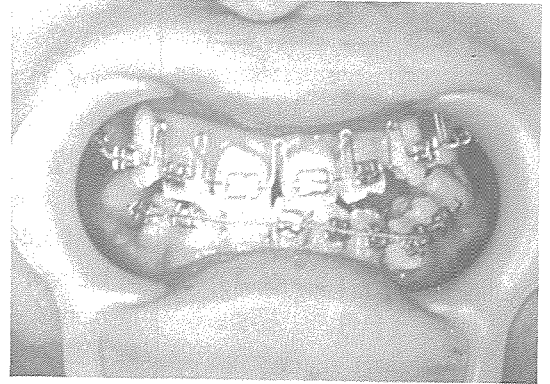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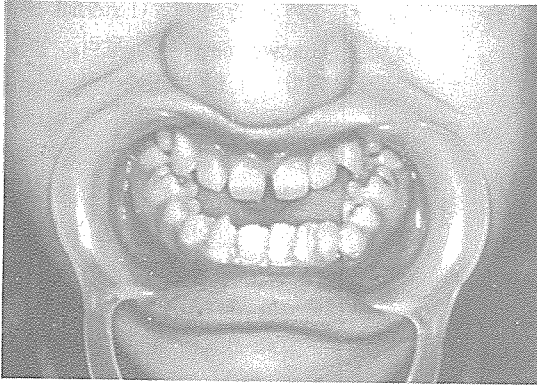


그림 1. 심한 상악후퇴증으로 상악전치가 하악대구치와 교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턱교정수술후에 상·하악치열의 위치관계가 정상적으로 개선되어 치아교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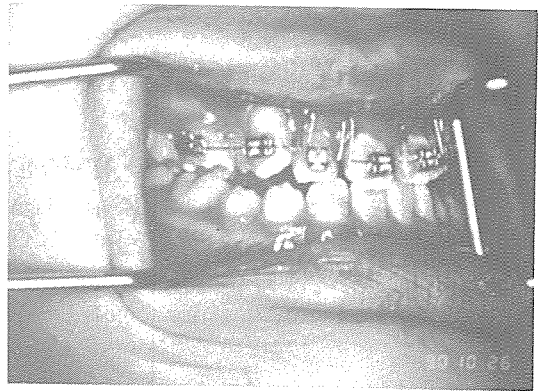


그림 2. 심한 상악후퇴증에 의한 반대교합, 개교합이 턱교정수술후 상·하치열이 위·아래턱과 함께 정상적 위치로 개선되었다.



그림 3. Cephalography상으로 심한 상악후퇴증을 관찰할 수 있으며 턱교정수술후 위·아래턱의 위치관계가 정상적으로 개선되었다. 수술방법은 LeFort I osteotomy와 sagittal split osteotomy임.